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2026. 11. 9.(월) 11:00 / 11. 10.(화) 조간 배포 2026. 11. 9.(월) 06:00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사양관리 안내·기술 지원 추진

- 한파·폭설 사전 대비부터 피해 발생 후 사후관리까지 현장 지원
- 한우·젖소는 사료·물 공급 충분히, 어린 돼지·병아리는 보온에 주의
- 보온·환기 함께 관리, 차단방역·전기 시설 점검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가축 건강과 축사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한파·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우와 젖소= 추위로 늘어나는 에너지 소모를 고려해 사료 급여량을 평소보다 10~20% 정도 늘리고, 품질 좋은 풀사료를 공급한다. 20도(℃) 내외의 물을 공급하고, 급수시설이 얼지 않도록 점검한다 축사 바람막이로 찬 바람을 막고, 송아지는 방한복과 보온시설을 활용해 보온 관리한다.

돼지는 성장 단계에 맞춰 젖 먹는 어린 돼지는 30~35도, 젖 뗀 어린 돼지는 22~29도를 유지한다. 돈사 안 습도는 육성돼지 60~70%, 비육돼지 50~60% 정도로 관리한다.

닭은 추워지면 사료 섭취량이 늘어나므로 계사 안 온도를 적절히 유지한다. 특히 추위에 약한 1주령 이내 병아리 사육 공간은 32~33도로 관리한다. 습도는 병아리 사육 초기에는 약 70%, 이후에는 60% 정도가 알맞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축사 보온시설과 환기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은 막되, 환기 통로는 확보한다. 바닥과 깔짚은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폭설에 대비해 축사 지붕과 지지 시설을 점검하고, 미리 보수한다.

이와 함께 차단방역도 철저히 한다. 야생동물이 축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 시설을 점검하고,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한다. 출입이 불가피한 차량은 바퀴와 하부까지 세척·소독한다. 축사에 들어갈 때는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한다. 농기계와 운반 도구도 사용 후 세척·소독해 실내에 보관한다.

보온등과 전열 기구 손상 여부와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한다. 전열 기구 주변 먼지와 가연성 물질을 치우고, 전기설비 점검과 보수는 전문업체에 맡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겨울철 기상 상황을 살피며 현장 기술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파·폭설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기상 예보에 따른 사전 대비 사항을 안내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가축 건강관리와 축사 환경 정비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축종별 시범사업 현장 방문과 연계해 보온·환기시설과 사육 환경을 살피고, 겨울철 피해 예방 요령을 지도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소영 기술지원과장은 “겨울철 피해를 줄이려면 평소 가축과 시설 상태를 살피고, 한파·폭설 예보에 맞춰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예방 지도를 지속하고, 피해 발생 시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소영 (063-238-7200)
		담당자	지도사	김창한 (063-238-7211)
			지도사	이경은 (063-238-7203)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사진〕 겨울철 가축 및 축사관리**

	
송아지 보온관리(원적외선 보온등)	돈사 청결 관리
	
계사 틈새바람 방지 시공	착유우사 바람막이